

미국 연말특수 전망과 한국증시의 도전

2021/ 11/ 02

Strategist

곽병열

(2009-7148)

brkwak@leading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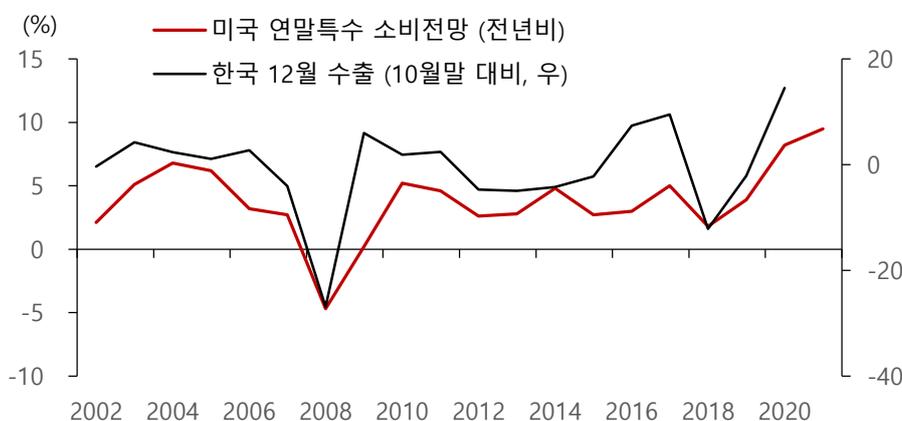
I. 미국 연말특수 전망, '매우 밝음'

- 전미소매협회(NRF)의 11~12 월 중 연말특수 소비 전망(Holiday Sales Forecast)에 따르면 전년대비 8.5~10.5% 증가하면서 지난해 8.2%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됨(금액기준 8,434~8,590 억달러 예상). 지난 5 년간 평균치는 4.4%였고, 지난해 8.2%로 높은 기저(base)를 감안하면 금번 미국 연말특수 전망은 '매우 밝음'으로 기대할만함. 증가율 및 금액기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임

- 블룸버그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 4 분기 소비지출은 4.0%(전분기비 연율)로 지난달 4.2%에서 하향조정되었으나, 미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(전망치와 발표치의 괴리)는 9 월 저점 이후 완만한 회복을 시도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도는 개선 중으로 판단함

- 미국 연말특수는 곧 국내수출의 연말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변수였음. 미국 연말특수 전망과 국내 12 월 수출(10 월말 대비)의 방향성은 높은 상관성(2002 년 이후 상관계수 0.76)을 나타냈는데, 이를 통해 금번 역대급의 미국 연말특수 전망은 국내 수출의 연말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판단함

<그림 1> 미국 연말특수의 양호한 전망으로 연말 국내수출 개선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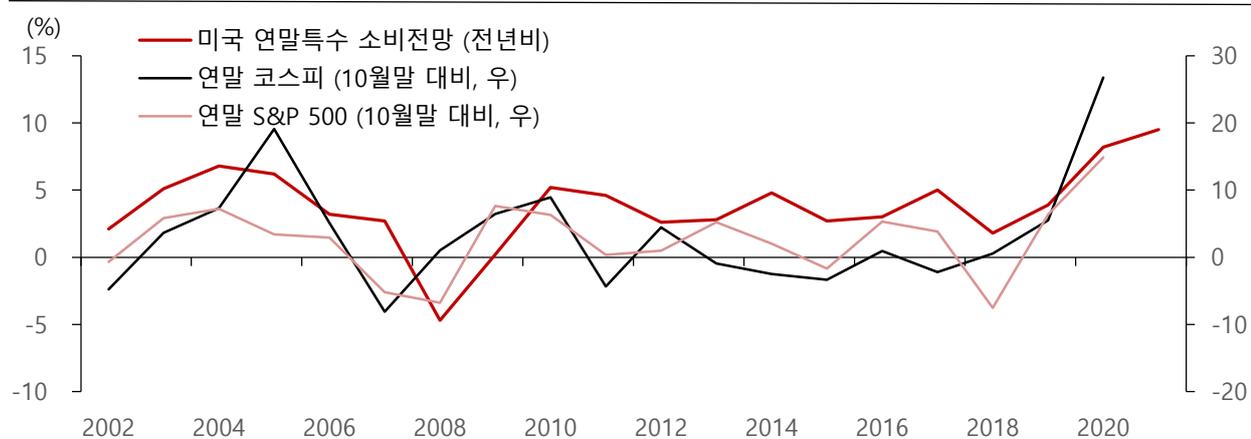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NRF,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II. 미국 연말특수, 추운 한국증시에 온기가 될까

- 미국 연말특수와 국내수출 연말효과의 밀접한 관계는 한국증시의 연말 장세에도 긍정적인 기대 요인임. 미국 연말특수 전망과 연말 S&P500 지수(10 월말 대비)는 높은 상관성(2002 년 이후 상관계수 0.65), 코스피지수(10 월말 대비)와는 일정한 상관성(2002 년 이후 상관계수 0.47)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. 미국 연말특수와의 연계성은 뉴욕증시보다는 다소 약하지만, 그래도 한국증시의 연말 장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파악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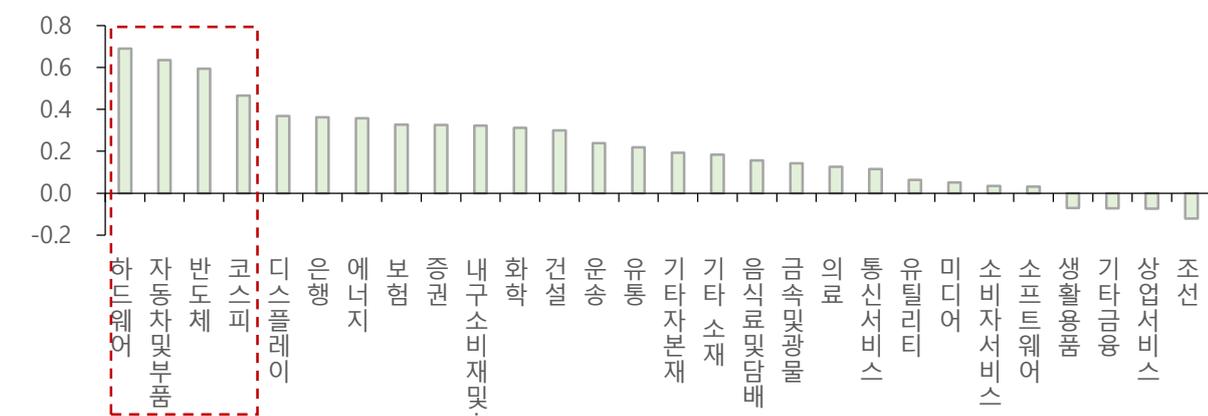
<그림 2> 미국 연말특수의 양호한 전망으로 연말 증시에도 온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



자료 : NRF,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- 2002 년 이후 미국 연말특수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국내증시의 업종지수는 IT 하드웨어(상관계수 0.69), 자동차 및 부품(0.64), 반도체(0.59)로 3 가지가 대표적이었음. 해당 업종은 미국 등 선진국 수출비중이 높고, 연간소비 중 상당부분이 연말특수 기간에 집중되는 소비 효과를 주가 역시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

<그림 3> 미국 연말특수와 한국증시 업종지수 간의 상관계수



자료 : NRF,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III. 미국 연말특수 전망의 시사점은?

(1) 미국 연말특수 전망(NRF)은 전년대비 8.5~10.5% 증가로 금번 소비회복 동력은 역대 최고수준

→ 미국 이코노미스트 전망보다 강한 연말특수를 예고한 것이며, 최근 전망치의 신뢰도는 개선 중임

→ 미국 연말특수 전망과 한국의 연말 수출은 높은 상관성(0.76)으로 연말효과 기대됨

(2) 미국 연말특수 효과는 뉴욕증시보다 덜하지만, 그래도 국내 수출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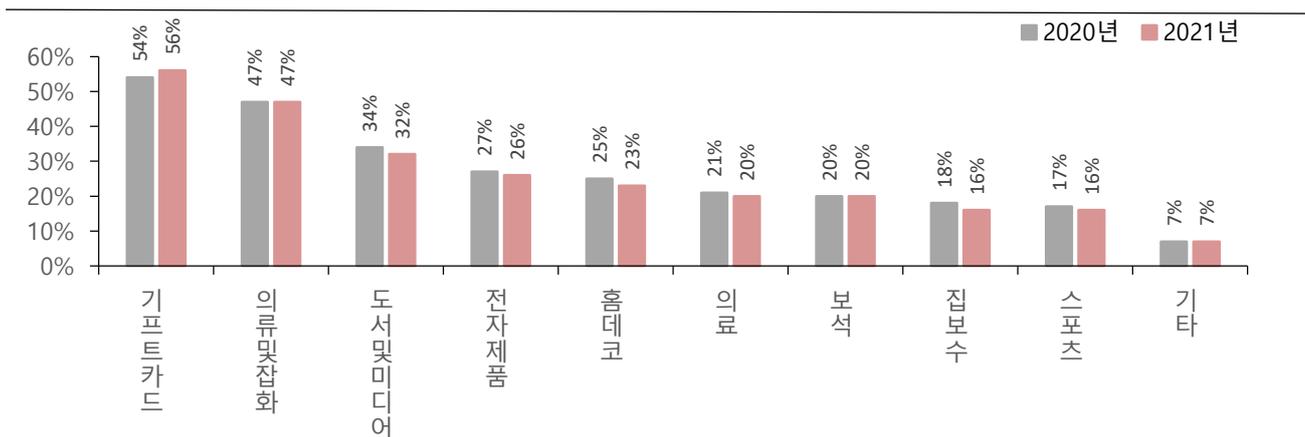
→ S&P500 지수(0.65)보다는 덜하지만 코스피지수도 정(+)의 상관성(0.47)을 보임

→ 업종별로 IT 하드웨어(0.69), 자동차 및 부품(0.64), 반도체(0.59)은 연말효과 기대되는 대표주임

(3) 미국 연말특수 & 중국 광군절 등을 통해 국내 수출주들의 실적가시성은 재부각될 것으로 전망

→ 금번 연말특수 중 전자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함

<그림 4> 올해 연말특수 기간 중 받고 싶은 선물은?



자료 : NRF, 리딩투자증권

▶ 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